

화엄에서의 불(佛)

본각(진영유) 중앙승가대학교 전 교수

목차

- I. 불을 보는 안목
 - 1. 다양한 여래신
 - 2. 견불과 불견불
 - 3. 「십지품」과 「입법계품」의 견불
- II. 여래 97종의 현상과 수호공덕
 - 1. 교판에서 논하는 불신
 - 2. 여래십신상해와 여래 수호
- III. 여래 10종 광명의 설법
 - 1. 여래 광명의 의미
 - 2. 지상법회의 방광
 - 3. 천상법회의 방광

국문초록

〈화엄에서의 불〉을 주제로 다양한 여래신을 살펴보고, 그러한 여래의 몸을 만나 보기 위해서는 여래를 볼 수 있는 안목(眼目)을 갖추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견불(見佛)의 의미를 먼저 추구하였다. 그리고 화엄의 여래십신(如來十身)을 이해하기 위하여 중국화엄교판에서의 불신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고, 「여래십신상해품」의 97종의 불신장엄상을 표로 정리하여 구체적인 형상을 살펴려고 노력하였다. 이어서 여래수호(如來隨好)의 공덕과 『화엄경』의 여래 10종 광명이 불신(佛身)과 밀접함도 살펴보았다.

「여래십신상해품」에서 여래신의 각 부분에서 광명이 곧 여래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동시에 공덕의 상징으로 여래신을 장엄하고 있음을 보았다. 『화엄경』 「세주묘엄품」에는 여래가 성도하신 법보리장(法菩提場)에서 마니보배의 깃발 아래 항상 광명이 방출된다는 경문이 나오는 것을 시작으로 광명이 도량의 장엄으로서 표현되기도 하고, 여래신의 상징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삼세제불이 소유하고 있는 불가사의한神通력이 광명을 통하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보여 지는 것이다. 특히 여래가 항상 대광명을 놓으니 그 광명 속에 무량불이 계신다고 하는 문장은 여래의 신력의 모습을 광명으로 비유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광명은 중생의 어리석음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또한 법을 항상 설하는 주체인 불신(佛身)을 상징한다. 그리고 중생의 지옥신(地獄身)은 악업의 소산이고 여래의 위신력은 선근과 반야바라밀의 위덕(威德)의 힘이라고 설하는 경문을 통하여 여래신은 곧 온갖 공덕의 총체적인 모습이며 광명으로 충만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주제어 : 여래십신(如來十身), 불신(佛身), 견불(見佛), 「여래십신상해품」,
10종광명

I. 불을 보는 안목

1. 다양한 여래신

불교의 교주인 불(佛)에 대하여 논의 할 때에 석존의 재세 시와 석존의 입멸 시에 성립된 불타관, 그리고 초월적인 석존관에서 요구되는 불타관과 대승불교의 성립에 따른 다양한 불신론이 전개 된다.¹⁾ 본 논문에서는 ‘불을 어떻게 불교문화에서 볼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형상화 된 화엄에서의 불을 추구해 보려고 한다.²⁾ 이는 화엄의 견불의(見佛義)와도 상응하는 문제이다. 『화엄경』과 화엄교학에 나타난 각종의 불신(佛身)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論義)를 견불(見佛)³⁾에서 시작하려고 한다.

1) 불상과 불타관의 성립에 관한 문헌으로는

(1) 高田 修 『佛像の起源』(東京, 岩波書店, 1967)

(2) 최완수 『佛像研究』(서울, 지식산업사, 1984)

(3) 『佛陀觀』 日本佛敎學會編(京都, 平樂寺書店, 1988) 등을 참고하기 바란다.

2) 본각(진영유) 「화엄경에 나타난 불타관」(『불교사상과 문화』 제1호, 중앙승가대학교불교학연구원, 2009)에서 불타관의 전반적인 문제를 살펴보았다.

3) 陳永裕(本覺) 「華嚴의 佛身と 見佛의 意義」(『印度學佛敎學研究』 제62卷2号, 日本印度學佛敎學會, 2014 수록)

불(佛)은 진여법계장(眞如法界藏)에 머물기 때문에 모양도 형체도 없지만 도리어 중생은 종종의 불신을 본다고 한다.⁴⁾ 또한 불은 법(法)으로써 몸을 삼기 때문에 허공처럼 청정하면서도 도리어 모든 형체로 나타난다는 것이다.⁵⁾ 이는 곧 불신은 무신(無身)이라는 의미이면서 중생의 업(業) 차별에 따라서 불의 시현신(示現身)을 보게 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⁶⁾

불신은 종종신(種種身), 진실체(眞實體), 불법신(佛法身), 묘색신(妙色身), 지혜신(智慧身), 무량불(無量佛) 등으로 경전에 기록되어 있다. 이는 곧 불신의 성격을 나타낸 것으로 시현신(示現身)으로는 종종신과 무량불신이 있으며 법신(法身), 색신(色身), 혜신(慧身)을 두루 갖춘 것으로 뒤에 삼신으로 요약되는 요인이 되었다고 본다.

불신은 제한이 없고 청정하기는 허공과 같으며, 불신을 보고나면 바로 모든 속세의 업장이 소멸되어 구경청정(究竟淸淨)을 얻고 일체 불선법(不善法)을 여의게 된다고 한다.⁷⁾ 특히 「입법계품」에서는 견불하고 나면 모든 갈애(渴愛)를 다 제멸(除滅)하고, 제근(諸根)이 청정해지며, 보리심을 발(發)하며, 대지혜(大智慧)를 얻고, 보리도(菩提道)를 성취한다고 견불을 찬탄하고 있다.⁸⁾

4) 『화엄경』 권5, 「세주묘엄품」(대정장10.22b)

5) 『화엄경』 권6, 「여래현상품」(대정장10.30c, 31c); 권13, 「광명각품」(대정장10.64c).

6) 『화엄경』 권1, 「세주묘엄품」(대정장10.9a); 권50, 「여래출현품」(대정장10.266a).

7) 『화엄경』 권1, 「세주묘엄품」(대정장10.9a); 권5, 「세주묘엄품」(대정장10.22a); 권28, 「십회향품」(대정장10.226b, 277b).

8) 『화엄경』 권60, 「입법계품」(대정장10.325a~326c).

2. 견불과 불견불

견불이 밖으로 불을 보는 것이라면, 「아마궁중계찬품」에서는 중생이 자신의 마음 씹씹이가 세간의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내고 있는 줄을 알게 된다고 한다. 또한 이러한 인식이 생길 경우 불을 보고서 곧바로 불의 진실성을 알게 된다[若人知心行 普造諸世間 是人則見佛 了佛真實性]는 것이다.⁹⁾ 또한 「여래출현품」에서는 여래가 깨닫고 나서 중생을 보니 여래와 조금도 다르지 않는 광대한 지혜를 자신 속에 완벽하게 갖추고 있으므로 어리석음을 떨쳐버리면 바로 자신의 여래성품을 보게 된다고 한다.¹⁰⁾ 이러한 유형의 견불은 『화엄경』에 보이는 ‘유심적(唯心的) 견불’이라고 이름할 수 있을 것이다.

불을 절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不見佛)는 중생이 어리석음 때문에 눈에 보이는 모양에만 집착하거나, 고정된 모양이 본래 없음을 알지 못하면 일단은 불을 보지 못한다. 또한 오온의 모습[五蘊相]에 집착하여 진성(眞性)을 알지 못하거나, 지혜가 없고, 죄업을 짓고 과보를 받는 극한상황에 처하면 불을 보지 못한다고도 한다.¹¹⁾ 더 나아가서는 잘못된 직업[邪命]으로 삶을 영위하고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불을 보지 못한다고 강조한다.¹²⁾ 따라서 화엄에서는 먼저 불을 볼 수 있는 견불(見佛)을 위한 안목(眼目)을 갖추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견불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근본이 되는 눈을 우선 갖추어야 할 것이다. 경전은 그러한 눈[眼]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하고 있다.

9) 『화엄경』 권19, 「아마궁중계찬품」(대정장10.102a).

10) 『화엄경』 권51, 「여래출현품」(대정장10.272c).

11) 『화엄경』 권16, 「수미정상계찬품」(대정장10.81c~82a).

12) 『화엄경』 권50, 「여래출현품」(대정장10.266b).

『반야경』에서는 5종의 눈, 곧 육안(肉眼), 천안(天眼), 혜안(慧眼), 법안(法眼), 불안(佛眼)을 말한다.¹³⁾ 『대지도론(大智度論)』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육안의 부족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천안 등을 말한 것이며, 결국 불안이 일체를 두루 다 본다고 한다.¹⁴⁾ 여기에 『화엄경』에서는 5종의 안(眼)을 더 보태어 십안(十眼)을 든다. 곧 보살은 육안으로 일체 형상을 보고, 천안으로 일체 중생의 마음을 보고, 혜안으로 일체 중생의 육근과 대상 경계를 보고, 법안으로 일체 법의 여실상(如實相)을 보고, 불안으로 여래의 심력을 본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안으로 제법(諸法)을 지견(知見)하고, 광명안(光明眼)으로 여래의 광명을 보고, 출생사안(出生死眼)으로 열반을 보고, 무애안(無礙眼)으로 보는 것에 장애가 없고, 일체지안(一切智眼)으로 보문(普門)의 법계를 본다고 한다.¹⁵⁾

법장은 이러한 오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육안은 한 티끌의 체성이 없는 형체만을 보고, 법안은 그 티끌이 연기(緣起)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고, 혜안은 티끌의 체성(體性)이 공하여 소유(所有)할 수 없음을 보고, 천안은 모든 분별을 떠나서 둘 아님을 보고, 불안은 주객과 시공을 초월하여 유무(有無)에 평등함을 본다고 한다.¹⁶⁾

이상의 오안 내지 십안을 갖추고 나면 자연히 불을 보게 된다. 특히 지엄에 의하면 견불과 불의 명수(名數)는 일승, 삼승, 소승교에서 뜻이 같지 않다고 전제한다. 말하자면 소승교에서는 색신불(色身佛)의 32상 등의 실색상(實色相)을 보는 견불이고, 삼승에서는 즉색시

13) 『금강반야파라밀경』(대정장8.751b).

14) 『대지도론』 권33(대정장25.305c-306a).

15) 『화엄경』 권57, 「리세간품」(대정장10.302c).

16) 『화엄경의해백문』(대정장45.630a).

공(卽色是空) 등의 불체(佛體)와 상응하는 견불이며, 일승교의 경우는 견문(見聞) 이후에 생멸상(生滅相)이 없음과 「이세간품」에 언급된 무착불 등의 십불을 보는 견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¹⁷⁾ 그리고 일승교는 『화엄경』에 의거하여 십불(十佛)을 보고, 삼승교는 법신·보신·화신의 삼신(三身)을 보며, 소승교는 생신(生身)·화신의 이신(二身)을 본다고 한다.¹⁸⁾ 또한 견불은 신(信)과 해(解)를 지나서 행(行)을 성취하는 단계라고 설함으로써 화엄의 신·해·행·증에서의 행의 단계임을 밝히고 있다.¹⁹⁾ 지엄의 이러한 교판에 의한 단계적인 견불의 해석은 뒤에 이통현의 인중견불(人中見佛), 제천견불(諸天見佛), 제룡견불(諸龍見佛), 선인견불(仙人見佛), 외도견불(外道見佛), 팔부신견불(八部神見佛), 소승인견불(小乘人見佛), 연각견불(緣覺見佛), 권교보살견불(權教菩薩見佛), 일승보살견불(一乘菩薩見佛)²⁰⁾의 10종 견불 해석으로 이어진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불(佛)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불을 보는 눈을 갖추어야하고 갖추어진 눈으로 각각의 분상(分上)에서 자신의 수준으로 불의 모습을 보게 된다. 반대로 견불의 대상이 되는 불신(佛身)에도 종종 차별이 있다. 곧 10종의 불의 모습이 있고, 보는 이의 경지(境地)에 따라서 10종으로 불의 다른 모습을 보는 것이다

17) 『화엄오십요문답』 권1(대정장45.519a).

18) 『화엄오십요문답』 권1(대정장45.519b).

19) 『수현기』 권4(대정장35.86b).

20) 『신화엄경론』 권6(대정장36.758b~c), 권7(同.769a).

3. 「십지품」과 「입법계품」의 견불

『화엄경』 전체에서 특히 견불을 강조하고 있는 품은 「십지품」이다. 각 지의 끝부분에는 반드시 백천억 무량불(無量佛)의 견불을 강조하고 있다. 처음 환희지에서는 이 지위에 머물고서는 대원력에 의지하여 많은 부처님을 보게 되며, 특히 가족을 버리고 출가하여 근행정진하는 가운데에 온갖 삼매와 제불을 본다고 한다. 이 내용은 이구지에 서도 마찬가지이다.²¹⁾ 다음 발광지, 염혜지, 난승지, 현전지, 원행지에서 보살은 원력에 의지해서 다불(多佛)을 보고, 한 순간에 백천 삼매에 들어가고 무량불을 본다고 한다. 그리고 현전지에서 법운지까지는 본문에서 ‘시현보살(示現菩薩)’이라고 한 것을 계송에서는 ‘견불’이라고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도 주목된다.²²⁾ 또한 부동지, 선혜지, 법운지에서는 지금까지 ‘원력에 의지해서 다불을 보게 된다’라고 말한 부분을 ‘삼매력에 의하여 다불을 보게 된 것이다’라고 바꾸어 표현하고 있다.²³⁾ 이는 원력의 견불과 삼매의 견불이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부동지에서 불의 2종 십신을 설하고 있는 것 또한 견불과 관련하여 중요시되고 있다. 보살은 중생의 마음속에 원하는 바를 따라서 중생신(衆生身)을 자기 몸으로 삼기도 하고, 그 외의 업보신(業報身), 허공신(虛空身) 등을 자기 몸으로 삼기도 하여 종종(衆)의 신(身)을 나타낸다고 한다.²⁴⁾ 제10 법운지는 바로 불위(佛位)와 동등한 수직보

21) 『화엄경』 권34, 「십지품」(대정장10.183a~c, 186b~c).

22) 『화엄경』 권37, 「십지품」(대정장10.195b~c).

23) 『화엄경』 권38, 「십지품」(대정장10.200c).

24) 『화엄경』 권38, 「십지품」(대정장10.200a).

살위(受職菩薩位)로서 보살이 10종 삼매를 얻고 중생의 욕락(欲樂)을 따라서 색신(色身), 장엄구족신(莊嚴具足身), 불신(佛身)을 시현하여 자기 몸으로 삼는다고 한다. 더 나아가서는 국토(國土)와 불신(佛身)을 자재로 시현하여, 불신과 중생신과 자신(自身) 및 유정(有情)과 무정(無情) 간의 원융무애한 경지를 설하고 있다.

다음 「입법계품」에서는 성문제자(聲聞弟子)의 견불과 보살의 견불을 극명하게 구분 짓는 경문이 특이하다. 이 문제는 사리불(舍利佛) 존자(尊者)를 상수(上首)로 하는 6천 비구의 이야기와 상응하는 부분으로, 이승(二乘)은 절대로 여래의 경계를 보지도 알지도 못한다고 강조하고 있다.²⁵⁾ 그러나 불신의 보편성이라는 관점에서는 시방에 두루하며 원융무애한 불신을 누구나 볼 수 있다[能見]고 설하고, 근기의 차별성이라는 관점에서는 이승은 그러한 불신을 보지 못한다[不見]고 설하고 있다.

특히 『화엄경』에서 불신은 시방과 삼세에 어느 곳 어느 때에도 볼 수 있는 것으로 그 다양성과 원융성이 표출되어 있으면서도 일승과 삼승, 성문과 보살, 중생의 마음속에 추구하는 정도 등에 따라서 보는 안목을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삼매의 경지에서 견불이 가능한 반면에 믿음이 없는 중생은 절대로 불을 볼 수 없다고 하는 부분도 중요한 대목이다.

25) 『화엄경』 권60, 「입법계품」(대정장10.323c~324a).

II. 여래 97종의 현상(現相)과 수호공덕

1. 교판에서 논하는 불신

이제 불을 보는 경우와 불을 볼 수 있는 눈을 갖추었다면 『화엄경』에서 불의 모습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를 검토해 보자.

여래십신(如來十身)은 『화엄경』에서 주장하는 십신불로서 「십지품」을 시작으로 십신의 명칭이 등장하며, 「이세간품」에서 각 십불을 설하고 있고, 지엄은 이를 주목하여 이중십불설(二種十佛說)을 주장한다. 이는 곧 화엄불신론의 주축이 되고 있다.²⁶⁾ 지엄이 『수현기』에서 화엄설법의 처소를 논하는 가운데에 불(佛)의 삼신(三身)을 보는 견해에 국(局)과 통(通)이 있다고 전제하고, 통견(通見)으로 보면 삼신이 함께 구유(具有)해서 보현신과 화장세계해에 일일호성(一一互成)하는 것으로, 일승에 의하면 십불(十佛)이 아울러 다 통합이 있다고 보고 있다.²⁷⁾ 또한 「보살명난품」 주석 제9 일승심심에서 아불(我佛)의 인과체용(因果體用)은 다 동일한 법이며 법성일법(法性一法)²⁸⁾이라고 한 것도 주목한다. 특히 『수현기』의 「이세간품」의 십불의 주석에 있어서 이 십불을 삼신불에 대응시키고 있는 점이다.²⁹⁾ 지

26) 지엄의 2종 십신설은 본각 『불교사상과 문화』 제1호(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연구원, 2009, pp.66~69)에서 재인용했음을 밝힌다.

27) 『수현기』에 七處佛 三身中是何 此解有二一局一通...通者三身具有一一互成...若約一乘卽下十佛普皆通有也 (대정장35.16상-)중

28) 『수현기』(대정장35.29중-하) ; 木村清孝『初期中國華嚴思想の研究』(東京, 春秋社, 1977, p.476)에서도 이점을 지적하고 있다.

29) 『수현기』 「이세간품」의 주석에서 次第三辨說十佛化被於他 初三報佛次三化次四法佛 此但一相解耳 (대정장35. 83하)

엄의 만년의 저서인 『오십요문답』 첫머리에 「이세간품」의 십불과 그 명의(名義)를 해석하는 항목을 두고 있다. 그에 의하면, 견불과 불의 명수는 일승 삼승 소승교에서 뜻이 같지 않다고 전제한다. 따라서 소승교에서는 색신불의 32상 등의 안근(眼根)으로 경계를 보는 등의 실색상(實色相)을 보는 것이 견불이 되고, 삼승의 견불은 변계의 소견이 아닌 무성(無性), 무거래상(無去來相)의 즉색시공 등의 불체(佛體)와 상응하는 것이 견불이며, 일승의 견불로서 「이세간품」의 무착불(無着佛) 등의 십불을 들고 있다. 그리고 불의 명수에 있어서도 일승은 무착불 등의 십불, 삼승은 법신, 보신, 화신의 삼신불, 소승은 생신불과 화신불의 이불(二佛)을 들고 있다. 그리고 법신의 다른 이름은 자성신으로 본유진여(本有眞如)이며 화신의 다른 이름은 응신으로 수생행덕(修生行德)이며, 소승의 생신과 화신은 둘 다 수생(修生)으로서 자비애행(慈悲愛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석한다.³⁰⁾ 이 『오십요문답』에서 지엄이 불신에 대한 기본 해석을 알 수 있고, 지엄은 불신을 일승과 삼승의 교판에 의해서 보고 있으며, 지엄의 기본 사상은 모든 교의를 일승으로 융회하는데 에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아직 이 『오십요문답』에서는 이중십불에 대한 견해는 보이지 않는다.³¹⁾ 지엄은 불신에 대하여 먼저 화엄의 십신불을 중요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일승과 삼승에서 바라보고 일승으로 회통하는 데 에 역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바로 뒤를 이어서 「노사나불품」의 타방불성화의(他方佛成化義)에서도 보인다. 소승교에는 타방이 없으며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차방불이 타방에 가서 교화하

30) 『화엄오십요문답』(대정장45.519상-중)

31) 木村清孝 앞의 책에서도 지적, p.476

는 것이라고 말하고 삼승에는 화현보(化顯報)와 보현화(報顯化)³²⁾를 말할 수 있지만 결국 화신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 항목에서도 일승에는 다만 십불이 있으며 체에 의지해서 대도를 해석하면, 체와 상과 용에 일체종체(一切種體)와 일체종상(一切種相)과 일체종용(一切種用)이 있으며 다 석가의 해인정중의 출현으로 다른 불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을 한다.³³⁾ 근본적으로 지엄은 불신을 일승교의로 회통하려는 의도로 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불신의 상과 무상을 묻는 항목에서도 소승, 삼승, 일승으로 나누어서 답을 한다. 일승의 십불은 상과 무상과 비상비무상이라는 것이다. 불신의 용은 불설이지만 설하는 까닭에 상이고, 아함과 상응함으로 무상이며 연기를 따르기 때문에 비상비무상이라는 것이다.³⁴⁾

지엄의 최만년의 저작으로 보는 『공목장』에서 불이 중생을 향한 회향행으로서 불의 삼신을 설명한다. 소승은 실불보신(實佛報身)이라고 하여 왕궁에 태어나서 보리수하에서 정각을 이룬 것이 섭생(攝生)하는 화용(化用)의 덕(德)이라고 한다. 삼승은 삼신을 성취하고 일승은 이중십불이라고 하여 비로소 해경(解境)과 행경(行境)의 십불설을 말한다. 지엄의 불신론, 해경십불은 제8지의 삼세간 중에 불신, 중생신 등을 지목하고 있다.

지엄은 또한 「여래상해품」(여래십신상해품)을 해석하면서 『화엄경』의 「부사의법품」, 「여래상해품」, 「불소상광명공덕품」에서 혹자는 삼신으로 불신을 해석하지만, 결코 옳지 않으며 『화엄경』에는 오직

32) 『화엄오심요문답』에 一以化顯報 卽菩提樹下顯蓮華藏世界海中佛是報故也 二以報顯化 舉色究竟處成高大身 顯菩提樹下是化義也 (대정장45.520상)

33) 상동

34) 상동 (대정장45.521중)

이중십심불이 있을 뿐이라고 단언한다.³⁵⁾ 이를 통하여 지엄이 만년에 이르러서는 화엄의 불신은 이중십불설로 확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지엄이 이처럼 주장한 이중십불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그간의 지엄의 견해는 「이세간품」의 십불을 일승의 견지에서 보아서 삼승과의 회통을 목표로 하던 것이 삼승의 삼신설에 대하여 화엄의 이중십불설을 확립하는 것으로 마감하고 있다. 지엄의 이러한 사상의 추이는 처음 교판의 차원에서 십불을 바라보던 것을 만년에 이르러서는 해행(解行)이라고 하는 실천의 차원에서 『화엄경』을 해석하려고 했다고 말할 수 있다.³⁶⁾ 이 해행의 개념은 지엄이 『수현기』에서 십문현을 개설할 때에 십문에 각각의 10의가 구족하다고 하면서 나열한 가운데에 해행구족이 있다. 이 해행의 개념은 이처럼 지엄에게 일찍이 성립되어 있었고³⁷⁾ 법장에게도 중요한 주제로 전해지고 있다.

35) 공목장 (대정장45.580상-중)

36) 『수현기』에 一同時具足相應門 於中有十 一教義具足二理事具足三解行具足四因果具足五人法具足六分齊境界具足七師弟法智具足八主伴依正具足九逆順體用自在具足十隨生根欲示現具足 (대정장35.15중)

37) 지엄은 일찍이 수현기 제6현전지의 十平等法을 해석하면서 해경과 행경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해경은 不住道下の 所依行인 觀門方便을 말하고, 行境은 十平等의 觀解라고 말하는데 의미가 불분명하다. (대정장35.60하), 중요한 뜻은 십이인연의 연기의 현상을 십평등법을 통하여 실천에 입각해서 해석하려고 한 점이다.

2. 여래십신상해와 여래수호(隨好)

『화엄경』에서 불을 형상으로 보려고 한다면 「여래십신상해품」의 97종의 불신장엄상을 살피는 것이 기본이 된다. <표1>에 경문을 정리한 것과 같이 여래가 갖추고 있는 모습[如來所有相海]은 여래정상의 32종 대인상을 시작으로 미간, 눈, 코, 혀, 등³⁸⁾에서 두 발가락 끝까지 97종의 거룩한 여래의 모습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각 명칭에는 광명, 구름, 빛남, 장엄 등의 용어가 주로 쓰이고 있다. 이는 여래의 모습이 광명으로 충만하며, 구름처럼 자재로움을 의미하며 세상을 밝게 비추는 덕용(德用)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래십신상해품」의 97종의 여래의 모습을 밝힌데 이어서 「여래수호광명공덕품」이 뒤를 잇고 있는데, 여래의 수호(隨好)란 수형호(隨形好)로서 여래의 32상에 이어서 82종의 소소한 형상의 특징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이 여래 수호에 대하여 『화엄경』은 여래가 이러한 수호가 있음으로 해서 원만왕(圓滿王)이라고 이름하며, 이 수호로부터 치성(熾盛)이라는 대광명을 방출하니 7백만아승지광명이 따라서 빛을 발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여래가 보살로서 도솔천궁에 머물 때, 광당왕(光幢王)이라는 대광명을 놓아서 10불찰미진수세계를 비추었고 그 세계에서 지옥의 고통을 받고 있던 중생이 이 광명을 만나고서는 모든 고통이 사라졌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10종의 청정한 안, 이, 비, 설, 신, 의를 얻고서 떨 듯이 기뻐하였다고 하는 경문이 있다.³⁹⁾ 지

38) 60과 80권본 『화엄경』에는 귀(耳)의 대인상이 없는 것이 특이하다(대정장10.253a, 9.602b). 반면 혀(舌)의 대인상은 4종을 들고 있다.

39) 『화엄경』 권48, (대정장10.255c)

육고를 면한 중생이 생을 마치고는 도솔천에 탄생하면 심가애락(甚可愛樂)이라는 이름의 도솔천의 북(鼓)이 울려서 탄생을 알리고 그 북이 말을 하기를, “모든 천자여, 너희들은 마음에 방일하지 말고 여래의 처소에서 모든 선근을 심어야 한다. 그 옛날 많은 선지식을 친근하였고 비로자나대위신력으로 명을 마치고 이 천상에 태어난 것이다. 불자야, 보살의 발바닥에 천복륜(千輻輪)이 있는데 이름은 광명보조왕이고 원만왕이라는 수호가 있어서 항상 40종 광명을 놓으니 그 중 하나가 청정공덕이라는 이름의 광명으로서 수많은 불찰미진수를 비쳐서 지옥의 중생을 구제한다.”라고 하느 북[天鼓]이 법을 설하는 경문이 이어진다. 곧 여래의 수호의 형상 역시 광명이고, 공덕이며 선근을 쌓아서 고통 받는 중생을 구제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하느 북이 이러한 깨우침의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선근의 힘으로 가능하다고 답을 한다.⁴⁰⁾ 중생이 잘못된 악업과 어리석음으로 지옥의 몸을 받는 것이 결정적인 근본원인이 있어서가 아니며, 비로자나보살이 광명을 놓아서 지옥의 중생을 구제하는 것도 삼매 선근의 힘이고 반야바라밀의 힘이라고 하느 북은 법을 설하고 있다.⁴¹⁾

결국 「여래십신상해품」은 비로자나여래가 이미 갖춘 거룩한 상호이고, 이어지는 「여래수호광명공덕품」은 비로자나보살이 선근공덕을 쌓아서 갖춘 공덕임을 알 수 있다. ‘비로자나여래’와 ‘비로자나보살’로 명칭은 같으나 위계는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데, 비로자나여래는 곧 법신비로자나로 생각할 때, 법신이 97종의 거룩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97종은 불신의 각 부분의 모양을 매우 세

40) 『화엄경』 권48, (대정장10. 256a)

41) 『화엄경』 권48, (대정장10. 256a)

밀하게 표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제36 여래설(如來舌)대인상은 ‘시현음성영상운’이라는 명칭이고 그 의미를 살피면 “아름다운 색깔로 장엄되어 있고 숙세 선근으로 이루어 졌으며 혀는 넓고 커서 일체 세계해를 덮으며 여래가 혹 미소를 지으면 마니보배광명이 시방법계를 두루 덮어서 일체 중생의 마음을 청량하게 해준다.”고 설하고 있다. 비로자나여래는 곧 법신인데 법신여래가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이례적인 이야기가 된다. 법신은 형상도 없거니와 설법도 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화엄의 불신론으로서 의상(義湘)의 자신안목(自身眼目) 불신론, 법장의 삼신즉십신(三身卽十身) 불신론, 정관의 삼신원융(三身圓融) 불신론⁴²⁾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의 안목으로 여래를 본다는 것이며, 삼신사상과 화엄의 십신사상이 다르지 않다는 법장의 주장이나 삼신이 원융하여 차별이 없다고 보는 정관의 불신론이 각각 다 하나로 통합되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 97종 여래 대인상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에 정리하였다.

42) 본각(진영유) 「화엄경에 나타난 불타관」 앞의 논문(pp.69~74)

〈표 1〉「여래십신상해품」의 97종 여래현상

如來頂上 有三十二寶莊嚴大人相	대인상 명칭	대인상 내용(대정장10. 251b~255c)
제1대인상	光照一切方普放無量 大光明網	一切妙寶以為莊嚴 寶髮周遍 柔軟密緻 ——咸放摩尼寶光 充滿一切無邊世界 悉現佛身色相圓滿
제2대인상	佛眼光明雲	以摩尼王種種莊嚴出金色光 如眉間毫相所放光明 其光普 照一切世界
제3대인상	充滿法界雲	上妙寶輪以為莊嚴 放於如來福智燈明 普照十方一切法界 諸世界海 於中普現一切諸佛及諸菩薩
제4대인상	示現普照雲	金摩尼種種莊嚴 其諸妙寶咸放光明 照不思議諸佛國土 一 切諸佛於中出現
제5대인상	放寶光明雲	摩尼寶王清淨莊嚴 毘瑠璃寶以為華鬘 光照十方一切法界 於中普現種種神變 讚歎如來往昔所行智慧功德
제6대인상	示現如來遍法界大 自在雲	菩薩神變寶焰摩尼以為其冠 具如來力覺惡一切寶焰光輪以 為其鬘 其光普照十方世界 於中示現一切如來坐於道場 一 切智雲充滿虛空無量法界
제7대인상	如來普燈雲	以能震動法界國土 大自在寶海而為莊嚴 放淨光明充滿法 界 於中普現十方諸菩薩功德海 過現未來佛智慧幢海
제8대인상	普照諸佛廣大雲	因陀羅寶 如意王寶 摩尼王寶以為莊嚴 常放菩薩燈焰光 明 普照十方一切世界 於中顯現一切諸佛家色相海 大音聲 海 清淨力海
제9대인상	圓滿光明雲	上妙瑠璃摩尼王種種寶華以為莊嚴 一切眾寶舒大焰網充滿 十方 一切世界一切眾生悉見如來現坐其前 讚歎諸佛及諸 菩薩法身功德 令入如來清淨境界
제10대인상	普照一切菩薩行藏 光明雲	眾寶妙華以為莊嚴 寶光普照無量世界 寶焰普覆一切國土 十方法界通達無礙 震動佛音宣暢法海
제11대인상	普光照耀雲	毘瑠璃 因陀羅 金剛摩尼寶以為莊嚴 瑠璃寶光色相明徹 普 照一切諸世界海 出妙音聲充滿法界 如是皆從諸佛智慧 大 功德海之所化現
제12대인상	正覺雲	以雜寶華而為莊嚴 其諸寶華悉放光明 皆有如來坐於道場 充滿一切無邊世界 令諸世界普得清淨 永斷一切妄想分別
제13대인상	光明照曜雲	以寶焰藏海心王摩尼而為莊嚴 放大光明 光中顯現無量菩 薩及諸菩薩所行之行 一切如來智身法身諸色相海充滿法界
제14대인상	莊嚴普照雲	以金剛華毘瑠璃寶而為莊嚴 放大光明 光中有大寶蓮華座 具足莊嚴彌覆法界 自然演說四菩薩行 其音普遍諸法界海
제15대인상	現佛三昧海行雲	於一念中 示現如來無量莊嚴 普遍莊嚴一切法界 不思議 世 界海
제16대인상	變化海普照 雲	妙寶蓮華如須彌山以為莊嚴 眾寶光明 從佛願生 現諸變 化無有窮盡
제17대인상	一切如來解脫雲	清淨妙寶以為莊嚴 放大光明莊嚴一切佛師子座 示現一切 諸佛色像及無量佛法諸佛剎海
제18대인상	自在方便普照雲	毘瑠璃華 真金蓮華 摩尼王燈 妙法焰雲以為莊嚴 放一切 諸佛寶焰密雲 清淨光明充滿法界 於中普現一切妙好莊 嚴之具
제19대인상	覺佛種性雲	無量寶光以為莊嚴 具足千輪 內外清淨 從於往昔善根所生 其光遍照十方世界 發明智日 宣布法海

如來頂上 有三十二寶莊嚴大人相	대인상 명칭	대인상 내용(대정장10. 251b~255c)
제20대인상	現一切如來相自 在雲	衆寶瓔珞瑠璃寶華以為莊嚴 舒大寶焰充滿法界 於中普現等一切佛刹微塵數去來現在無量諸佛 如師子王勇猛無畏色相 智慧皆悉具足
제21대인상	遍照一切法界雲	如來寶相清淨莊嚴 放大光明普照法界 顯現一切無量無邊諸佛菩薩 薩智慧妙藏
제22대인상	毘 盧遮那如來相雲	上妙寶華及毘瑠璃清淨妙月以為莊嚴 悉放無量百千萬億摩尼寶 光 充滿一切虛空法界 於中示現無量佛刹 皆有如來結跏趺坐
제23대인상	普照一切佛光明雲	衆寶妙燈以為莊嚴 放淨光明遍照十方一切世界 悉現諸佛轉於法輪
제24대인상	普現一切莊嚴雲	種種寶焰以為莊嚴 放淨光明充滿法界 念念常現不可說不可說一切諸佛與諸菩薩坐於道場
제25대인상	出一切法界音聲雲	摩尼寶海上妙檀以為莊嚴 舒大焰網充滿法界 其中普演微妙音聲 示諸衆生一切業海
제26대인상	普照諸佛變化輪雲	如來淨眼以為莊嚴 光照十方一切世界 於中普現去來今佛所有一切莊嚴之具 復出妙音 演不思議廣大法海
제27대인상	光照佛海雲	其光普照一切世界 盡于法界無所障礙 悉有如來結跏趺坐
제28대인상	寶燈雲	放於如來廣大光明 普照十方一切法界 於中普現一切諸佛及諸菩薩不可思議諸衆生海
제29대인상	法界無差別雲	放於如來大智光明 普照十方諸佛國土 一切菩薩道場衆會無量法海 於中普現種種神通 復出妙音隨諸衆生心之所樂演說普賢菩薩行願令其迴向
제30대인상	安住一切世界海普照雲	放寶光明充滿一切虛空法界 於中普現淨妙道場及佛菩薩莊嚴身相 令其見者得無所見
제31대인상	一切寶清淨光焰雲	放於無量諸佛菩薩摩尼妙寶清淨光明 普照十方一切法界 於中普現諸菩薩海 莫不具足如來神力 常遊十方盡虛空界一切刹網
제32대인상	普照一切法界莊嚴雲	最處於中 漸次隆起 閻浮檀金 因陀羅網以為莊嚴 放淨光雲充滿法界 念念常現一切世界諸佛菩薩道場衆會
제33여래미간대인상	遍法界光明 雲	摩尼寶華以為莊嚴 放大光明 具衆寶色 猶如日月洞徹清淨 其光普照十方國土 於中顯現一切佛身 復出妙音宣暢法海
제34如來眼大人相	自在普見雲	以衆妙寶而為莊嚴 摩尼寶光清淨映徹 普見一切皆無障礙
제35如來鼻大人相	一切神通智慧雲	清淨妙寶以為莊嚴 衆寶色光彌覆其上 於中出現無量化佛坐寶蓮華 往諸世界為一切菩薩 一切衆生演不思議諸佛法海
제36如來舌大人相	示現音聲影像雲	衆色妙寶以為莊嚴 宿世善根之所成就 其舌廣長遍覆一切諸世界海 如來若或熙怡微笑 必放一切摩尼寶光 其光普照十方法界 能令一切心得清涼 去來現在所有諸佛 皆於光中炳然顯現 悉演廣大微妙之音 遍一切刹住無量劫

如來頂上 有三十二寶莊嚴大人相	대인상 명칭	대인상 내용(대정장10. 251b~255c)
제37如來舌(掌) 復有大人相 ⁴³⁾	法界雲	其掌安平家寶為嚴 放妙寶光色相圓滿 猶如眉間所放光明 其光普照一切佛刹 唯塵所成無有自性 光中復現無量諸佛 咸發妙音說一切法
제38如來舌端大人相	照法界光明雲	如意寶王以為莊嚴 自然恒出金色寶焰 於中影現一切佛海 復震妙音充滿一切無邊世界 ——音中具一切音 悉演妙法 聽者心悅 經無量劫玩味不忘
제39如來舌端復有 大人相	照耀法界雲	摩尼寶王以為嚴飾 演眾色相微妙光明 充滿十方無量國土 盡于法界靡不清淨 於中悉有無量諸佛及諸菩薩 各吐妙音 種種開示 一切菩薩現前聽受
제40如來口上嚙大 人相	示現不思議法界雲	因陀羅寶毘瑠璃寶以為莊嚴 放香燈焰清淨光雲 充滿十方 一切法界 示現種種神通方便 普於一切諸世界海 開演甚 深不思議法
제41如來口右輔 下牙大人相	佛牙雲	眾寶摩尼卐字相輪以為莊嚴 放大光明普照法界 於中普現 一切 佛身 周流十方開惡群生
제42如來 口右輔 上牙大人相	寶焰彌虛藏雲	摩尼寶藏以為莊嚴 放金剛香焰清淨光明 ——光明充滿法 界 示現一切諸佛神力 復現一切十方世界淨妙道場
제43如來 口左輔 下牙大人相	寶燈普照雲	一切妙寶舒華發香以為莊嚴 放燈焰雲清淨光明 充滿一切 諸世界海 於中顯現一切諸佛坐蓮華藏師子之座 諸菩薩眾 所共圍遶
제44如來口左輔 上牙大人相	照現如來雲	清淨光明閻浮檀金寶網寶華以為莊嚴 放大焰輪充滿法界 於中普現一切諸佛 以神通力於虛空中流布法乳 法燈 法寶 教化一切諸菩薩眾
제45如來 齒大人相	普現光明雲	——齒間相海莊嚴 若微笑時悉放光明 具眾寶色摩尼寶 焰 右旋宛轉 流布法界靡不充滿 演佛言音說普賢行
제46如來脣大人相	影現一切寶光雲	放閻浮檀真金色 蓮華色 一切寶色廣大光明 照于法界悉 令清淨
제47如來頭大人相	普照 一切世界雲	摩尼寶王以為莊嚴 紺滿成就柔軟細滑 放毘盧遮那清淨光 明 充滿十方一切世界 於中普現一切諸佛
제48如來右肩大 人相	佛廣大一切寶雲	放一切寶色 真金色 蓮華色光明 成寶焰網普照法界 於中 普現一切菩薩
제49如來右肩復有 大人相	最勝寶普照雲	其色清淨如閻浮金 放摩尼光充滿法界 於中普 現一切菩薩
제50如來左肩大 人相	最勝光照法界雲	猶如頂上及以眉間種種莊嚴 放閻浮檀金及蓮華色眾寶光明 成大焰網充滿法界 於中示現一切神力
제51如來左肩復有 大人相	光明遍照雲	其相右旋 閻浮檀金色摩尼寶王以為莊嚴 放眾寶華 香焰光 明充滿法界 於中普現一切諸佛及以一切嚴淨國土

43) 대정장10. 253c 주1번에 일본 궁내성본에 掌이 추가되었다고 표시함.

如來頂上 有三十二寶莊嚴大人相	대인상 명칭	대인상 내용(대정장10. 251b~255c)
제52如來左肩復有大人相	普照耀雲	其相右旋 微密莊嚴 放佛燈焰雲 清淨光明充滿法界 於中顯現一切菩薩種種莊嚴悉皆妙好
제53如來胸臆有大人相形如卍字 ⁴⁴⁾	吉祥海雲	摩尼寶華以為莊嚴 放一切寶色種種光焰輪 充滿法界普令清淨 復出妙音宣暢法海
제54吉祥相右邊大人相	示現光照雲	因陀羅網以為莊嚴 放大光輪充滿法界 於中普現無量諸佛
제55吉祥相右邊復有大人相	普現如來雲	以諸菩薩摩尼寶冠而為莊嚴 放大光明普照十方一切世界悉令清淨 於中示現去來今佛坐於道場 普現神力廣宣法海
제56吉祥相右邊復有大人相	開敷華雲	摩尼寶華以為莊嚴 放寶香焰燈清淨光明 狀如蓮華充滿世界
제57吉祥相右邊復有大人相	可悅樂金色雲	以一切寶心王藏摩尼王而為莊嚴 放淨光明照于法界 於中普現猶如佛眼廣大光明摩尼寶藏
제58吉祥相右邊復有大人相	佛海雲	毘瑠璃寶香 燈 華 鬘以為莊嚴 放滿虛空摩尼寶王香燈大焰清淨光明 充滿十方一切國土 於中普現 道場衆會
제59吉祥相左邊大人相	示現光明雲	無數菩薩坐寶蓮華以為莊嚴 放摩尼王種種間錯寶焰光明 普淨一切諸法界海 於中示現無量諸佛 及佛妙音演說諸法
제60吉祥相左邊復有大人相	示現遍法界光明雲	摩尼寶海以為莊嚴 放大光明遍一切刹 於中普現諸菩薩衆
제61吉祥相左邊復有大人相	普勝雲	日光明摩尼王寶輪鬘而為莊嚴 放大光焰充滿法界諸世界海 於中示現一切世界 一切如來 一切衆生
제62吉祥相左邊復有大人相	轉法輪妙音雲	一切法燈清淨香雲以為莊嚴 放大光明充滿法界 於中普現一切諸佛所有相海及以心海
제63吉祥相左邊復有大人相	莊嚴雲	以去來今一切佛海而為莊嚴 放淨光明嚴淨一切諸佛國土 於中普現十方一切 諸佛菩薩及佛菩薩所行之行
제64如來右手大人相	海照雲	衆寶莊嚴 恒放月焰清淨光明 充滿虛空一切世界 發大音聲 歎美一切諸菩薩行
제65如來右手復有大人相	影現照耀雲	以毘瑠璃 帝青 摩尼寶華而為莊嚴 放大光明普照十方菩薩所住蓮華藏 摩尼藏等一切世界 於中悉現無量諸佛 以淨法身坐菩提樹 震動一切十方國土
제66如來右手復有大人相	燈焰鬘普嚴淨雲	毘盧遮那寶以為莊嚴 放大光明成變化網 於中普現諸菩薩衆 咸戴寶冠演諸行海
제67如來右手復有大人相	普現一切摩尼雲	蓮華焰燈而為莊嚴 放海藏光充滿法界 於中普現無量諸佛 坐蓮華座

44) 대정장10. 253c 주5번에 송, 원, 명과 궁내성본에는 卍자로 되어 있다고 표시함.

如來頂上 有三十二寶莊嚴大人相	대인상 명칭	대인상 내용(대정장10. 251b~255c)
제68如來右手復有大人相	光明雲	摩尼焰海以為莊嚴 放衆寶焰 香焰 華焰清淨光明 充滿一切諸世界網 於中普現諸佛道場
제69如來左手大人相	毘瑠璃清淨燈雲	寶地妙色以為莊嚴 放於如來金色光明 念念常現一切上妙莊嚴之具
제70如來左手復有大人相	一切刹智慧燈音聲雲	以因陀羅網金剛華而為莊嚴 放閻浮檀金清淨光明 普照十方一切世界
제71如來左手復有大人相	安住寶蓮華光明雲	衆寶妙華以為莊嚴 放大光明如須彌燈 普照十方一切世界
제72如來左手復有大人相	遍照法界雲	以妙寶鬘 寶輪 寶瓶 因陀羅網及衆妙相以為莊嚴 放大光明普照十方一切國土 於中示現一切法界 一切世界海 一切如來坐蓮華座
제73如來右手指有大人相	現諸劫刹海旋雲	水月焰藏摩尼王一切寶華以為莊嚴 放大光明充滿法界 其中恒出微妙音聲滿十方刹
제74如來左手指大人相	安住一切寶雲	以帝青 金剛寶而為莊嚴 放摩尼王衆寶光明充滿法界 其中普現一切諸佛及諸菩薩
제75如來 右手掌有大人相	照耀雲	以摩尼王千輻寶輪而為莊嚴 放寶光明 其光右旋充滿法界於中普現一切諸佛 ——佛身光焰熾然 說法度人淨諸世界
제76如來左手掌有大人相	焰輪普增長化現法界道場雲	以日光摩尼王千輻輪而為莊嚴 放大光明充滿一切諸世界海於中示現一切菩薩 演說普賢所有行海 普入一切諸佛國土 各各開惡無量衆生
제77如來陰藏有大人相	普流出佛音聲雲	一切妙寶以為莊嚴 放摩尼燈華焰光明 其光熾盛 具衆寶色 普照一切虛空法界 其中普現一切諸佛遊行往來處處周遍
제78如來右臂大人相	寶燈鬘普照雲	諸摩尼寶以為莊嚴 放不思議寶焰光明 彌布十方一切法界與虛空法界同為一相 而能出生一切諸相 ——相中悉現諸佛自在神變
제79如來左臂大人相	示現一切法界海光明 彌覆虛空雲	猶如蓮華清淨妙寶以為嚴飾 放光明網遍照十方一切法界於中 普現種種相雲
제80如來右髀有大人相	普現雲	以衆色摩尼而為莊嚴 其髀與臚上下相稱 放摩尼焰妙法光明 於一念中能普示現一切寶王遊步相海
제81如來左髀大人相	現一切佛無量相海雲	一切寶海隨順安住以為莊嚴 廣大遊行 放淨光明普照衆生 悉使希求無上佛法
제82如來右邊伊尼延鹿王踰大人相	一切虛空法界雲	光明妙寶以為莊嚴 其相圓直善能遊步 放閻浮金色清淨光明 遍照一切諸佛世界 發大音聲普皆震動 復現一切諸佛國土 住於虛空寶焰莊嚴 無量菩薩從中化現
제83如來左邊伊尼延鹿王踰大人相	莊嚴海雲	色如真金 能遍遊行一切佛刹 放一切寶清淨光明 充滿法界 施作佛事
제84如來寶臚上毛大人相	普現法界影像雲	其毛右旋 ——毛端放寶光明 充滿十方一切法界 示現一切諸佛神力 其諸毛孔悉放光明 一切佛刹於中顯現

如來頂上 有三十二寶莊嚴大人相	대인상 명칭	대인상 내용(대정장10. 251b~255c)
제85如來足下大人相	一切菩薩海安住雲	色如金剛閻浮檀金 清淨蓮華放寶光明 普照十方諸世界海 寶香焰雲處處周遍 舉足將步 香氣周流 具衆寶色充滿法界
제86如來右足上大人相	普照一切光明雲	一切衆寶以為莊嚴 放大光明充滿法界 示現一切諸佛菩薩
제87如來左足上大人相	普現一切諸佛雲	寶藏摩尼以為莊嚴 放寶光明 於念念中現一切佛神通變化 及其法海所坐道場 盡未來際劫無有間斷
제88如來右足指間大人相	光照一切法界海雲	須彌燈摩尼王千輻焰輪種種莊嚴 放大光明充滿十方一切法界諸世界海 於中普現一切諸佛所有種種寶莊嚴相
제89如來左足指間大人相	現一切佛海雲	摩尼寶華 香焰 燈鬘 一切寶輪以為莊嚴 恒放寶海清淨光明 充滿虛空 普及十方一切世界 於中示現一切諸佛及諸菩薩 圓滿音聲 卍字等相 利益無量一切衆生
제90如來右足跟大人相	自在照耀雲	帝青寶末以為莊嚴 常放如來妙寶光明 其光妙好充滿法界 皆同一相無有差別 於中示現一切諸佛 坐於道場演說妙法
제91如來左足跟大人相	示現妙音演說諸法海雲	以變化海摩尼寶香焰海 須彌摩尼寶及毘瑠璃 而為莊嚴 放大光明充滿法界 於中普現諸佛神力
제92如來右足趺大人相	示現一切莊嚴光明雲	衆寶所成極妙莊嚴 放閻浮檀金色清淨光明 普照十方一切法界 其光明相猶如大雲 普覆一切諸佛道場
제93如來左足趺大人相	現衆色相雲	以一切月焰藏毘盧遮那寶 因陀羅尼羅寶而為莊嚴 念念遊行諸法界海 放摩尼燈香焰光明 其光遍滿一切法界
제94如來右足四周大人相	普藏雲	因陀羅尼羅金剛寶以為莊嚴 放寶光明充滿虛空 於中示現一切諸佛坐於道場摩尼寶王師子之座
제95如來左足四周大人相	光明遍照法界雲	摩尼寶華以為莊嚴 放大光明充滿法界平等一相 於中示現一切諸佛及諸菩薩自在神力 以大妙音演說法界無盡法門
제96如來右足指端大人相	示現莊嚴雲	甚可受樂閻浮檀清淨真金以為莊嚴 放大光明充滿十方一切法界 於中示現一切諸佛及諸菩薩無盡法海種種功德 神通變化
제97如來左足指端大人相	現一切佛神變雲	不思議佛光明 月焰普香 摩尼寶焰輪以為莊嚴 放衆寶色清淨光明 充滿一切諸世界海 於中示現一切諸佛及諸菩薩 演說一切諸佛法海
		佛子 毘盧遮那如來 有如是等十華藏世界海微塵數大人相 一一身分 衆寶妙相以為莊嚴 (대정장10. 235c)

이상이 「여래십신상해품」의 여래 정상을 시작으로 제97 여래의 오른쪽 발가락 끝에 갖춘 대인상의 명칭과 내용을 밝힌 경문이다. 이러한 형상으로 여래를 표현하고 있는 경문이다.

Ⅲ. 여래 10종 광명의 설법

1. 여래 광명의 의미

『화엄경』에 등장하는 불신은 항상 광명(光明)을 통해서 표출되며 수행자는 광명을 통해서 여래를 바라볼 것이 요청되므로 불신에 관한 논의는 광명에 대한 설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실제로 『화엄경』에는 광명이나 그에 근접한 용어가 대단히 많이 등장한다. 그리고 그 광명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무한대로 펼쳐지는 에너지의 원동력을 의미하기도 한다. 다시 말하면, 광명은 상즉상입과 원용무애를 가능하게 하는 힘으로서 작용하고 있다. 화엄교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여래의 10종 광명을 논하고 있지만, 이렇게 교학의 틀로 범주화된 광명 외에도 『화엄경』의 몇몇 품에는 광명에 관한 언급이 많이 등장한다. 예컨대 「세주묘엄품」에 보면 부처님이 성도하신 법보리장(法菩提場)에서의 아름다운 장엄상을 표현하면서 마니보배의 당번 아래에 항상 광명이 방출되고 미묘한 소리가 나며 광명 속에서 마니보배가 비처럼 쏟아진다고 서술하고 있다.⁴⁵⁾ 이는 곧 광명이 도량의 장엄으로서 표현된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같은 품에는 삼세제불이 소유하고 있는 불가사의한神通력이 광명을 통하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보인다고 하는 표현도 볼 수 있다.⁴⁶⁾ 아울러 여래가 항상 대광명을 놓으니 그 광명 속에 무량불이 계시며 수없는 중생

45) 『화엄경』 권1, 「세주묘엄품」(대정장10.1b~c).

46) 『화엄경』 권1, 「세주묘엄품」(대정장10.2a), “三世諸佛 所有神變 於光明中 靡不咸覩 一切佛土 不思議劫 所有莊嚴 悉令顯現).

의 일을 나타내어 교화하며, 불신(佛身)은 청정하고 고요해서 광명으로 세상을 두루 비춘다고 찬탄하는 계송을 볼 수 있다.⁴⁷⁾ 이는 여래의 신력(神力)의 모습을 광명에 비유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광명은 곧 중생의 어리석은 어두움을 다 파괴하는 힘을 갖고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불신이 곧 광명으로서 상징되며 이러한 비유는 무수히 많다.

한편 「현수품」에서의 광명의 작용은 매우 다양하고 무량한 장엄의 세계를 연출하고 있다. 이 품은 아름다운 문장을 통해 그러한 광명이 묘장엄(妙莊嚴), 화장엄(華莊嚴), 향장엄(香莊嚴) 등 무한한 장엄의 세계로 펼쳐지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⁴⁸⁾

『화엄경』의 마지막 품인 「입법계품」에서는 선재가 방문한 사자빈 신비구니⁴⁹⁾, 여성 선지식, 정취(正趣)보살, 지신(地神) 등도 방광(放光)으로 법을 설하고 있다.⁵⁰⁾ 이처럼 여래를 대신해서 법을 설하면서 많은 역할을 해내고 있는 『화엄경』의 광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경전에 묘사된 광명의 내용과 각 화엄가의 광명에 대한 해석을 살펴보는 것이 화엄의 불신에 접근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47) 『화엄경』 권1, 「세주묘엄품」(대정장10.6c), “如來恆放大光明 ——光中無量佛 各各現化衆生事”; (同.7b), “佛身清淨常寂滅 光明照耀遍世間”; (同.18a), “如來——毛孔中 悉放光明滅衆患 世間煩惱皆令盡.”

48) 『화엄경』 권14~15, 「현수품」(대정장10.74b~77b).

49) 『화엄경』 권67, 「입법계품」(대정장10.364c~365a), “時比丘尼 放大光明 普照其園衆會莊嚴 ….”

50) 『화엄경』 권68~69, 「입법계품」(대정장10.365c), “時婆須蜜多女 從其身出廣大光明 ….”; (同.367b), “… 正趣菩薩 放身光明 映蔽一切日月星電”; (同.368c), “時安住等百萬地神. 放大光明”; (同.378b), “時彼夜神 … 以諸相好 莊嚴其身 於兩眉間放大光明 ….”

2. 지상법회(地上法會)의 방광(放光)

먼저 80권본 『화엄경』, 곧 실차난타의 번역에 의하면 설법 장소는 지상(地上)의 세 곳과 천상(天上)의 네 곳으로서 이 중 지상에서 다섯 번의 법회가 이루어 졌다. 그 다섯 번의 법회 에서 여래의 대표적인 방광은 네 번의 법회에 걸쳐서 여섯 번 나타나고 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2〉 『화엄경』 각 품의 방광(放光)

	第一 菩提場	第二 普光明殿	第三 忉利天宮	第四 夜摩天宮	第五 兜率天宮	第六 他化天宮	第七 普光明殿	第八 普光明殿	第九 逝多林
三昧	毘盧遮那藏身	未入三昧	無量方便	菩薩善思惟	菩薩智光明	菩薩大智慧光明	剎那際	佛華嚴	師子頻申
放光名	齒光・眉間光	兩足輪	兩足指	兩足趺	兩膝輪	眉間毫相光	眉間光・口光		眉間白毫光
品名	如來現相品	光明覺品	須彌頂上偈讚品	夜摩天宮偈讚品	兜率天宮偈讚品	十地品	如來出現品	離世間品	入法界品
會主	普賢菩薩	文殊菩薩	法慧菩薩	功德林菩薩	金剛幢菩薩	金剛藏菩薩	如來	普賢菩薩	如來・善知識
所說法門	如來依正因果	十信法門	十住法門	十行法門	十迴向法門	十地法門	等覺妙覺法門	普賢大行法門	證入因果法門

그 첫번째는 초회(初會) 보리도량(菩提道場)에서 설했던 6품 중 「여래현상품」에 제시된 두 번의 방광(放光)으로서 먼저 어떠한 것이 제불(諸佛)의 신광(身光)이며 또한 제불의 광명인가를 궁금히 여기는 보살들을 위하여 세존이 치아 사이로 미진수의 광명을 발산하는

신통을 보이는데,⁵¹⁾ 그 광명은 중보화변조광명(衆寶華遍照光明) 등 10개의 광명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 이어 세존은 다시 ‘일체보살지광명(一切菩薩智光明)’이라고 하는 광명을 미간(眉間)에서 발산하고 그 속에 중생계와 제불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데, 그 광명은 여래의 발바닥으로 들어가 버린다.⁵²⁾ 「여래현상품」은 이처럼 치광(齒光)과 미간광(眉間光)이라는 두 번의 방광을 통하여 여래의 불가사의한 모습을 광명으로써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⁵³⁾

다음은 제2회 보광법당회(普光法堂會) 또는 첫 보광명진회(普光明殿會)에서 설해진 6품 중 「광명각품」의 방광이다. 특히 「광명각품」에 세존은 두 발바닥[兩足輪下]에서 백억 광명을 놓아서 삼천대천세계 백억의 무수한 세계와 모든 존재의 현상을 다 그 광명 속에 표출시키는 모양이 서술되어 있다.⁵⁴⁾ 이 「광명각품」에서 광명은 단순한 장엄이나 여래의 신력을 나타내던 의미로부터 벗어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중황무진으로 이동하면서 화엄교학적인 원융무애와 상즉상입을 예견하게 한다. 법장은 「노사나불품」에서 ‘광명변조(光明遍照)’를 해석하여 신광(身光)과 지광(智光)으로 나누었고,⁵⁵⁾ 「광명각품」에서도 이를 이어서 “신광은 현상의 영역[事境]을 비추어서 일체 사상(事相)의 무한함을 깨닫게 하며, 지광은 이치의 영역[理境]을 비추어서 이상(理相)의 차별 없음을 깨닫게 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 신광은 곧 지광으로서 유일무애광(唯一無礙光)이며,⁵⁶⁾ 광명

51) 『화엄경』 권1, 권6, 「여래현상품」(대정장10.26a~c).

52) 『화엄경』 권6, 「여래현상품」(대정장10.29c).

53) 『수현기』 권1(대정장35.20b~c); 『탐현기』 권3(대정장35.151b, 153a).

54) 『화엄경』 권13, 「광명각품」(대정장10.62b~63b).

55) 『탐현기』 권3(대정장35.146c), “此中光明有二種 一智光二身光 智光亦二義 一照法謂眞俗雙鑒 二照機謂普應群品 身光亦二種 一是常光謂圓明無礙 二放光謂以光警惡.”

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하여 이통현은 바로 중생들에게 신심(信心)을 각성시켜 스스로가 법신(法身)과 동체(同體)임을 깨닫고 수행에 몰입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풀이한다.⁵⁷⁾ 이 두 해석을 통해서도 「광명각품」에서의 광명의 작용은 원융무애의 교의(敎義)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 보광명전의 법회 이후 천상의 법회를 마치고 다시 여래는 지상의 보광법당에서 「십정품」 등 11품을 설하는 가운데에 두 번의 방광을 보인다.

이 회처(會處)에서의 첫 번째 여래의 방광은 「보왕여래성기품」, 곧 「여래출현품」에서 나타난다. 이 품에서는 광명을 놓는 여래와 법을 청하는 청주(請主)인 여래성기묘덕보살이 등장하고, 여래를 대신해서 법을 설하는 설주(說主)로서 보현보살이 등장한다. 그리고 초회 보리도량에서와 같이 미간에서 ‘여래출현(如來出現)’이라는 광명을 놓는다.⁵⁸⁾ 또한 그 광명의 위력은 보살들을 깨닫게 하고 모든 악도(惡道)를 소멸시키며 여래의 정각을 나타내 보이고는 이 「여래출현품」의 대표자인 여래성기묘덕보살의 이마에 들어간다.⁵⁹⁾ 보살의 이마로 들어간 이 광명에 대해서 법장은 여래가 청주(請主)를 가피(加被)한 광명이라고 하고, 여래의 입으로 나와서 보현보살의 입에 들어간 구광(口光)은 설주(說主)를 가피한 광명이라는 해석을 한다.⁶⁰⁾ 그리고 ‘무애무외(無礙無畏)’라 불리는 이 구광에 대해서 그는 교도

56) 『탐현기』 권4(대정장35.172a).

57) 『신화엄경론』 권15(대정장36.818b).

58) 『화엄경』 권50, 「여래출현품」(대정장10.262a). 60권본 『화엄경』에서는 「보왕여래성기품」이며 광명의 명칭은 ‘明如來法’으로 되어 있다(대정장9.611b).

59) 『화엄경』 권50, 「여래출현품」(대정장10.262a).

60) 『탐현기』 권16(대정장35.406a), “先毫光加請主 二口光加說主.”

(敎道)의 전통(傳通)을 표한 것이며 광명의 이름을 ‘무애’라고한 것은 변재무애(辯才無礙)와 언설자재(言說自在)를 의미하며, ‘무외’는 깊은 진리에 대하여 두려움이 없고 또한 대중에 대한 두려움이 없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다.⁶¹⁾ 법장의 스승인 지엄은 이 방광에 대하여 여덟 가지 뜻으로 해석하였는데, 이는 세친의 『십지경론』에 나온 광명 해석의 ‘8종업 2종신(八種業二種身)’에 근거한 것이다. 여기에서 8종업은 청업(請業), 인업(因業), 경업(敬業), 각업(覺業), 지업(止業), 항복업(降伏業), 시현업(示現業), 권서업(卷舒業)이다.⁶²⁾

한편, 법장은 『탐현기』에서 미간백호방광(眉間白毫放光)에 대하여 ‘중도일승법(中道一乘法)’, ‘무루백정법(無漏白淨法)’⁶³⁾ 등의 의미를 부여하였고, 징관은 지엄과 법장의 주석을 함께 수용하면서 이 통현의 해석까지 참고하면서 이 방광을 해석하고 있다. 즉 미간에서의 방광은 이변(二邊)을 여윈 중도로서 이는 무주(無住)의 도(道)이며 진응(眞應)의 이변을 떠난 것이라고 주석을 한다.⁶⁴⁾ 또한 징관은 이통현의 해석을 인용하여 보살의 명칭인 ‘성기(性起)’와 ‘묘덕(妙德)’은 문수의 대지(大智)로서 능현(能顯)이 되며 설주(說主)인 보현

61) 『탐현기』 권16(대정장35.406b).

62) 2종신에 대해서 세친은 “一如流星身 往他方世界故 二如日身 處於虛空”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십지경론』 권2(대정장26.131a~b); 『수현기』 권4(대정장35.79c); 『화엄경소』 권32(대정장35.748c).

63) 『탐현기』 권3(대정장35.153a). 법장은 다른 한편으로 『탐현기』 권16(同.406a)에서 「보왕여래성기품」에 나오는 미간백호광명에 대하여 “眉間者表證道離二邊故 白毫者表性起是諸教之本故”라고 풀이하고 있다. 또한 『탐현기』 권18(同.448c)의 「입법계품」의 미간백호방광을 해석한 곳에서는 “放白毫光者 顯中道平等白淨法界”라고 표현하고 있다. 한편 이통현은 『신화엄경론』 권31(대정장36.938a)에서 “眉間光是中道”라는 표현과 함께 문수와 보현을 이끌어 주석하고 있다.

64) 『화엄경소』 권49(대정장35.872a~b).

의 법계는 소현(所顯)이 된다고 한다. 이는 문수와 보현에 의해서 비로자나가 출현한다는 화엄삼성(華嚴三聖)사상에 입각한 해석으로서, 즉 광명으로 가피하는 여래와 청주(請主)인 묘덕의 지혜, 그리고 설주인 보현의 법계로 방광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⁶⁵⁾

마지막으로 제9회에 해당하는 「입법계품」은 지상의 서다림(逝多林) 기수급고독원에서 이루어 졌다. 「이세간품」에서는 여래의 방광이 없었고, 「입법계품」에서는 한 번의 설법이 끝난 다음에 방광을 한다. 방광의 의미는 모든 보살들을 사자빈신삼매에 안주(安住)시키기 위하여 ‘보조삼세법계문(普照三世法界門)’이라는 이름의 광명을 미간백호상에서 놓는다.⁶⁶⁾ 징관은 이것이 미간의 방광이며, 그 명칭이 ‘보조삼세법계문’이라는 데에 중요성을 두고, 광명의 의미를 법계중도(法界中道)인 무루정지(無漏正智)의 체용(體用)과 삼세상즉(三世相卽) 등의 의미를 부여하여 해석하고 있다.⁶⁷⁾ 이통현은 「입법계품」의 해석에 있어서 ‘법계 안에서 능히 법을 설하는 교체(敎體)’에 10종이 있음을 든다. 그 10종의 교체 중에 네 번째가 광명교체(光明敎體)인데, 이것은 여래가 미간의 광명으로써 삼세와 법계의 제법(諸法)을 현현(顯現)하는 것이다.⁶⁸⁾ 여래가 신통, 불가사의, 허공 등으로써 법을 설하는 것과 같이 광명도 그러한 방편 가운데 하나라는 해석인 것이다.

65) 『화엄경소』 권49(대정장35.872b)의 “亦有釋云”이라는 표현을 통해 징관이 이통현의 「여래출현품」 주석을 依用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신화엄경론』 권31(대정장36.938~939) 참고.

66) 『화엄경』 권61, 「입법계품」(대정장10.327b).

67) 『화엄경소』 권55(대정장35.916b).

68) 『신화엄경론』 권32(대정장36.944b).

3. 천상법회(天上法會)의 방광

다음은 천상설법에서는 네 번의 방광이 있다. 천상의 첫 법회인 도리 천회에서 6품이 설해지는데, 이 6품 중 두 번째인 「수미정상계찬품」에서 여래는 양족지(兩足指)로 방광을 한다. 다시 말해 세존은 두 발가락에서 방광을 하는데, 이는 세상의 어두움을 제멸하기 위하여 혜광(慧光)을 항상 비추는 것이라고 경전은 설한다.⁶⁹⁾ 지엄은 이 도리 천회에서 방광을 ‘집중광(集衆光)’이라고 부르면서, 이는 대중을 점차로 모이게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일시에 빛을 발하듯 행위(行位)가 원만히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광명이라고 해설한다. 그리고 발가락으로 방광하는 뜻은 해위(解位)에 서서 물러서지 않음이라는 의미를 부여한다.⁷⁰⁾ 또한 법장은 발가락으로 방광하는 의미는 땅을 딛고 확고히 서듯이 보살의 십주(十住)를 표현하여 물러서지 않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한다.⁷¹⁾ 한편 이통현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방광의 부위에 따라서 보살 계위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 도리천회에서 여래가 발가락 끝으로 방광을 하는 것은 십주(十住)의 경지에서 신심(身心)으로 지혜의 궁전에 들어가는 것이며, 이는 곧 성위(聖位)에 들어가는 처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설명한다.⁷²⁾

다음의 천상법회인 「아마궁중계찬품(보살설계품)」에서 세존은 양족상(兩足上)에서 광명을 놓으신다. 지엄은 앞의 「수미정상계찬품」

69) 『화엄경』 권16, 「수미정상계찬품」(대정장10.81b~c).

70) 『수현기』 권2(대정장35.33a).

71) 『탐현기』 권5(대정장35.194a). 정관은 『화엄경소』 권17(대정장35.629b)에서 법장의 해석을 답습하고 있다.

72) 『신화엄경론』 권16(대정장36.829a).

의 족지단(足指端) 방광은 ‘주(住)’의 법문이고 이 품에서는 ‘행(行)’의 법문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석하고 있다.⁷³⁾ 징관은 족상(足上) 방광에 대하여 발등의 움직이는 모습을 취하여, 신해(信解)를 의지하여 실천의 동작을 나타내는 방광으로 해석하고 있다.⁷⁴⁾ 이통현은 앞의 방광 해석에 더하여 십행(十行) 법문을 나타내는 족부방광(足趺放光)은 보살행의 차례 승진(次第昇進)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세존의 법광(法光)은 수천 수만의 묘색(妙色) 광명이 계위(階位)를 따라서 점차로 승진하는 경지를 나타내는 것이며, 족하(足下), 족지단(足指端), 족부상(足趺上) 등의 광명은 다 소행(所行)의 행법(行法)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석한다.⁷⁵⁾

다음 천상법회는 도솔천으로 이어지고 「도솔천궁계찬품」에서 양슬륜방광(兩膝輪放光)을 나타낸다. 도솔천궁에 세존이 모습을 나타내자 모든 위요대중의 찬탄과 장엄이 갖추어진 시점에서 세존은 이 찬탄에 대한 답을 하듯이 두 무릎으로부터 방광을 한다. 지엄은 이 방광의 의미에 대해서 “법신의 작용에 있어서 부처 경계에 들어가 뛰어난 모습을 증장시키는 것이다[法身行中 入佛境界增長勝妙相也]”라고 해석한다.⁷⁶⁾ 법장 역시 무릎은 굴신진취(屈申進趣)의 작용을 나타내는 의미로 인(因)을 돌이켜서 과(果)에 向하는[廻因向果] 진승(進昇)의 모습이라고 해석한다.⁷⁷⁾ 징관은 법장의 해석에 더 첨부하여 굴

73) 『수현기』 권2(대정장35.37c), “第二段中足指放光與前會何別 答況足指有行住二力 前彰住此顯行故況別也.” 법장도 『탐현기』 권6(대정장35.213b)에서 비슷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74) 『화엄경소』 권21(대정장35.655b), “跣背行必動故 背依輪指得有用故 表行依信解而成用故.” 여기에서 ‘跣(넘어질 질)’ 자는 ‘跣(발등 부)’로 읽는 것이 옳을 듯하다.

75) 『신화엄경론』 권18(대정장36.845a).

76) 『수현기』 권2(대정장35.42a).

신진취의 모양임과 동시에 비지(悲智)가 서로 이끌어 굴신무주(屈申無住)를 나타낸다고 하는 해석을 첨부한다. 여기에서 그는 ‘무주’라는 단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듯하다.⁷⁸⁾ 이통현은 십회향법의 슬상(膝上)방광은 사람이 앉고 서고 몸을 돌이키고 구부리고 펴는 등의 자재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십회향의 법문이 속처(俗處)를 돌이켜서 진해탈무염(眞解脫無染)의 대지(大智)를 나타내는 것이며 비원(悲願)으로 중생을 이롭게 하는 법문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이는 곧 생사에 있으면서도 항상 열반의 세계에 있고 열반에 머물면서도 생사에 결림이 없는 자유자재함을 나타내는 광명이라는 것이다.⁷⁹⁾ 즉 양슬륜방광은 생사열반의 자재함과 지비무애(智悲無礙)를 나타내는 광명으로서 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천상법회의 마지막으로 타화자재천궁에서의 「십지품」의 방광을 들 수 있다. 「십지품」에서는 세존이 미간으로부터 보살력염명(菩薩力焰明)이라고 하는 청정광명을 방출한다.⁸⁰⁾ 그리고 시방제불도 동시에 미간 방광을 하고 그 광명이 구름처럼 허공중에 모여서 광명으로부터 불찬탄(佛讚嘆)과 십지법(十地法)의 수승함을 계승으로 설하고 있다. 지엄은 이 부분을 부처님의 가피로 해석하여 신광(身光)의 가피와 구광(口光)의 가피로 나눈다. 그는 여기에서 방광하는 불(佛)을 화신불인 석가불로 보고, 타화자재천궁에서의 방광은 더 이

77) 『탐현기』 권7(대정장35.239b).

78) 『화엄경소』 권25(대정장35.691b). 『탐현기』 권9(대정장35.283c)에서는 「십지품」의 口光 가피를 해석하는 가운데 七方便중 無住方便을 들고 있다.

79) 『신화엄경론』 권20(대정장36.856b).

80) 『화엄경』 권34, 「십지품」(대정장10.180b), “世尊從眉間出清淨光明 名菩薩力焰明.” 60권 본 『화엄경』 권23(대정장9.544a)에서는 이 문장이 “從眉間白毫相 放菩薩力光明”로 되어 있다.

상 대중을 모으기 위한 방광이 아니라 불력(佛力)의 분제(分齊)와 가피의 설법을 나타내기 위한 방광이라고 해석한다.⁸¹⁾ 부처님의 방광에 대하여 삼신(三身)을 적용해서 주석한 예는 60권본 『화엄경』 적멸도량회의 「노사나불품」을 주석한 지엄의 『수현기』에서도 볼 수 있는데, 처음 「노사나불품」 경문의 시작에서부터 보불덕(報佛德), 화불덕(化佛德), 법신지중덕(法身持衆德)의 삼신에 대응한 경문 해석을 볼 수 있다.⁸²⁾ 법장은 대체적으로 광명을 신가(身加)와 구가(口加)로 나누어 보는데, 이것은 스승 지엄의 해석을 답습한 것이며, 그가 다시 여기에 의가(意加)를 더한 것은 세친의 『십지경론』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⁸³⁾ 따라서 그는 십지 법문에서의 대지혜광명삼매인 정(定)의 경지를 의력(意力)이라고 하여 의가에 대응시키고 있으며, 또한 방광하는 불에 대해서는 지엄과 달리 석가불이 아닌 사나불(舍那佛)로 보고 있다.⁸⁴⁾ 법장은 십지 종심(終心)에 불위(佛位)를 받는 것을 일체불이 일체지광(一切智光)을 놓아서 보살의 정수리에 들어가는 모양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고 이 모습을 곧 수기를 받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또한 이 수기의 십지보살은 바로 보신불을 성취한다고 한다.⁸⁵⁾ 정관은 미간의 방광 역시 중정(中正)의 도를 나타내는 것이며 광명의 체용에 광명의 6업을 들어서 해석하고 있다.⁸⁶⁾

81) 『수현기』 권3(대정장35.52c), “初明身加後明口加 身加經中有五一釋迦放光 ….”

82) 『수현기』 권1(대정장35.20a).

83) 『십지경론』 권2(대정장26.131a).

84) 『탐현기』 권9(대정장35.283c), “自下第三明其加相 於中有三 謂口意身加 此三加次第有其二門 … 二就舍那佛先意次身後口 爲令得定定由意力 是故居先 …”이라고 하여 三昧를 意加로 해석하고 있는 점 등이 지엄의 해석과 다른 부분이다.

85) 『탐현기』 권9(대정장35.284a).

86) 『화엄경소』 권32(대정장35.748c). 광명의 6업은 앞에서 밝힌 세친과 지엄의 광명 8업과 관련해서 이해할 수 있다.

이상에서 〈화엄에서의 불〉을 주제로 다양한 여래신, 견불의 의미, 중국화엄교판에서의 불신, 「여래십신상해품」의 97종의 불신장엄상, 여래수호의 공덕, 여래 10종 광명 등을 살펴보았다.

「여래십신상해품」에서 여래신의 각 부분에서 광명이 곧 여래신임과 동시에 공덕의 상징으로 여래신을 장엄하고 있음을 밝혔다. 『화엄경』 「세주묘엄품」의 여래가 성도하신 법보리장(法菩提場)에서 마니보배의 깃발 아래 항상 광명이 방출된다는 경문이 나오는 것을 시작으로 광명이 도량의 장엄으로서 표현되기도 하고, 여래신의 상징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삼세제불이 소유하고 있는 불가사의한神通력이 광명을 통하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보여 지는 것이다. 특히 여래가 항상 대광명을 놓으니 그 광명 속에 무량불이 계신다고 하는 문장은 여래의 신력의 모습을 광명으로 비유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광명은 중생의 어리석음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또한 법을 항상 설하는 주체인 불신(佛身)을 상징한다. 그리고 중생의 지옥신은 악업의 소산이고 여래의 위신력은 선근과 반야바라밀의 위덕력이라고 설하는 경문을 통하여 여래신은 곧 온갖 공덕의 총체적인 모습이며 광명으로 충만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참고문헌

- 『화엄경』 (대정장 제10권)
- 『금강반야바라밀경』 (대정장 제8권)
- 『대지도론』 (대정장 제25권)
- 『수현기』 (대정장 제35권)
- 『화엄오십요문답』 (대정장 제45권)
- 『공목장』 (대정장 제45권)
- 『화엄경의해백문』 (대정장 제45권)
- 『화엄경탐현기』 (대정장 제45권)
- 『화엄경소』 (대정장 제35권)
- 『신화엄경론』 (대정장 제36권)
- 高田 修 『佛像の起源』 (東京, 岩波書店, 1967)
- 崔完秀 『佛像研究』 (서울, 지식산업사, 1984)
- 木村清孝 『初期中國華嚴思想の研究』 (東京, 春秋社, 1977)
- 『佛陀觀』 日本佛教學會編 (京都, 平樂寺書店, 1988)
- 『印度學佛敎學研究』 제62卷2号 (日本印度學佛敎學會, 2014)
- 『불교사상과 문화』 제1호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연구원, 2009)

Buddha in Garland Sutra of the Great Universal Buddha

(大方廣佛華嚴經 ; sanskr. Maha-Vaipulya-Avatamsaka-Sutra)

Bongak(Jin, Young You) ex-Prof. of JungAng Saṅgha University

In the topic of The Buddha in Flower Garland Sutras looking at the characteristics of a Tathāgata's physical appearances, I spend this paper into looking for the meaning to experience of the complete perfect enlightenment is to develop the insight. For 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istics of 10 Tathāgata's physical appearances in Flower Garland Sutras, this paper compared with Tathāgata's physical appearance of Chinese version of this sutra. This study extends into catching more specific meaning of Tathāgata's 97 kinds of adornments in the chapter of The Ocean of the Characteristics of a Tathāgata's Ten Bodies.

In the chapter of The Ocean of the Characteristics of a Tathāgata's Ten Bodies, the radiant light was identified with Tathāgata himself and also symbolizes the merit and virtues of Buddha. First chapter of The Wondrous Adornments of the Rulers of the Worlds, Buddha's enlightened place was constantly poured forth bright light under banners

made of mani gems. This radiant light also symbolize Buddha himself too. Mysterious supernatural power of all Buddhas of past, present and future is revealed through radiant light which transcend time and space. Every spiritual transformation of all Buddhas of the three periods of time without exception was visible within that light, and all adornments of the lands of all Buddhas throughout inconceivable eons were completely manifest therein.

The emitted awesome, magnificent light liberates all sentient beings ignorance, as when the rising sun illuminates the whole world like Buddha. His radiance fully pervaded the Dharma Realm is equally and without discrimination to subdue all sentient beings. This full magnificent light of Tathāgata through sutra texts is the integral attribute of all universal virtues.

